



## 지난해 롤드컵 우승팀 '담원 기아 스킨' 출시

지난해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팀 담원 기아의 우승 스킨(사진)이 출시됐다. 담원 기아는 지난해 10월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에서 중국의 누닝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리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세계 최강' 타이틀도 3년 만에 되찾았다. 담원 기아의 우승 기념 스킨은 팀의 핵심 색깔인 민트색을 주색상으로 디자인했다. 또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너구리' 장하권(현 FPX 소속)의 케넬, '캐니언' 김건부의 니달리, '쇼메이커' 허수의 트위스티드 페이트, '고스트' 장용준의 진, '베릴' 조건희의 레오나로 결정됐다. 스킨의 콘셉트는 '신화'로, 웅장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했다. 스킨과 스킨 세트 판매 수익의 25%는 담원 기아, 우승 당시 팀 멤버들, LCK 구단에 전달된다. 한편 담원 기아는 전 세계 스프링 우승팀이 모여 최강을 가리는 '2021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에 참가한다. 6일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개막해 22일까지 펼쳐진다.

## 추억의 게임기 '재믹스 슈퍼'...미니로 부활



1990년 대우에서 출시한 게임기 '재믹스 슈퍼'가 '재믹스 슈퍼 미니(사진)'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2019년 '재믹스 미니'를 출시한 국내 아마추어 게임기 제작팀 네오팀이 개발한 두 번째 작품으로, 7월경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온라인숍을 통해 정식 출시 예정이다. 재믹스 슈퍼 미니는 가로 15cm 정도 크기로 HDMI 출력과 USB 단자를 지원한다. 화이트 버전 700대, 블랙 버전 700대, 화이트와 블랙 버전을 합친 한정판 세트 300대로 출시된다. 조이패드도 그대로 구현했다. 패키지는 본체와 조이스틱 1개, 설명서와 전원 연결을 위한 C타입 케이블로 구성된다. 1년 동안 국내 주변기기 전문업체 테크라인에서 AS를 담당한다. 이승준 네오팀 기획팀장은 "재믹스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84년으로, 이번 재믹스 슈퍼는 37년 만에 부활한 게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추억을 가진 마니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최고 퀄리티로 게임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1990년 대우에서 출시한 게임기 '재믹스 슈퍼'가 '재믹스 슈퍼 미니(사진)'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2019년 '재믹스 미니'를 출시한 국내 아마추어 게임기 제작팀 네오팀이 개발한 두 번째 작품으로, 7월경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온라인숍을 통해 정식 출시 예정이다. 재믹스 슈퍼 미니는 가로 15cm 정도 크기로 HDMI 출력과 USB 단자를 지원한다. 화이트 버전 700대, 블랙 버전 700대, 화이트와 블랙 버전을 합친 한정판 세트 300대로 출시된다. 조이패드도 그대로 구현했다. 패키지는 본체와 조이스틱 1개, 설명서와 전원 연결을 위한 C타입 케이블로 구성된다. 1년 동안 국내 주변기기 전문업체 테크라인에서 AS를 담당한다. 이승준 네오팀 기획팀장은 "재믹스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84년으로, 이번 재믹스 슈퍼는 37년 만에 부활한 게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추억을 가진 마니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최고 퀄리티로 게임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나란히 4월에 출범한 오버워치 리그(왼쪽)와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가 시즌 초반 뜨거운 열기를 품으며 '명품리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코로나19 시대' e스포츠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블리자드다.



# 오버워치·하스스톤 명품승부에 게임팬 열광

오버워치 리그, 강팀들 부진 이번 온라인 중계 진화로 보는 재미 UP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도 후끈 총 48명 선수가 두 시즌 걸쳐 승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포츠가 이전만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스포츠'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이 가진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비대면 시대의 인기 스포츠로 급부상했다. 블리자드는 올해도 e스포츠의 강점을 살린 명품 리그를 준비했다. '오버워치 리그 2021 시즌'과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를 상반기 동시 출범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진행 방식 변경과 중계방송 개선 등의 변화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 ●오버워치 리그 초반 이번 속출

오버워치 리그는 지난 달 17일 20개 팀이 총 상금 425만 달러(약 47억 원)를 놓

고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초반 분위기는 좋다. 처음 적용된 운영 포맷과 개선된 기술 지원이 현장감 넘치는 경험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서부와 동부 지역 간 라이벌 구도가 재미를 더하고 있다. 정규시즌 중 서부에선 예선전 상위 6팀, 동부에선 4팀이 각각 녹아웃 매치를 통해 해당 월 토너먼트에 진출할 두 팀씩을 선발한다. 팀의 안전과 이동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서부 상위 2개 팀이 하와이로 이동해 아시아-하와이 간 다이렉트 라우팅 연결로 토너먼트를 치를 계획이다. 같은 방식으로 올 시즌 총 4차례 월간 토너먼트 챔피언을 뽑는다. 시즌 내내 동부와 서부 강자들의 자존심 대결을 볼 수 있다. 다만 필요 시 지난해와 동일한 지역별 토너먼트 챔피언 선발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막 주간 나타난 결과도 인기몰이에 기여하고 있다. 리그 우승 3연패를 노리는 샌프란시스코 쇼크, 동부의 신승 강자 상하이 드래곤즈가 패배하는 등 이번이 속출했다. 라인하르트·디바, 맥크래메이 외에도 윈스턴, 레깅볼을 필두로 한

플진, 오리사를 앞세운 저격수 등 다양한 조합이 등장한 것도 고무적이다.

컨테너스 코리아 출신 한국인 리거들의 활약상도 볼거리다. 휴스턴 아웃로즈의 'JJANGGU' 조명희, 토론토 디파이언트 'NA1ST' 이호성, 광저우 차지 'C HOISEHWAN' 최세환 등은 팀의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온라인 중계의 기술적 진화로 보는 재미도 업그레이드됐다. 올 시즌 처음 도입한 4K 화질 중계는 경기 시청의 몰입감을 높여준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선수용 카메라 셋업 방식도 개선했다. 특정 상황에서 이뤄진 대화나 오더를 공개해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한다. 팬들은 '클립 공유하기'를 활용해 최대 60초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지인들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볼거리와 즐기는 방법 모두 다양화했다.

###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도 순항

올해 첫 시즌을 4월 9일 개막한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도 순조로운 출발

을 보였다.

총상금 48만6000달러(약 5억4000만원) 규모로 펼쳐지는 시즌1은 6월 6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금, 토, 일 오후 6시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시청할 수 있다. 하스스톤 그랜드마스터즈는 3개 지역 16명씩, 총 48명의 선수가 실력을 겨룬다. 한국 선수로는 'che0nsu' 김천수, 'Dawn' 장현재, 'Surrender' 김정수 등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그랜드마스터즈는 총 두 시즌으로 구성되며 각각 8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정복전, 스페셜리스트, 승자연전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7주 동안의 성적을 바탕으로, 8주 차에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하스스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선 그랜드마스터즈뿐 아니라 스트리머컵 등 다양한 대진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처음 하스스톤을 시작하는 초보자 가이드 영상부터 숙련자들을 위한 플레이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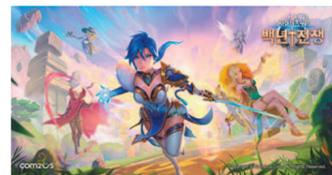
## '백년전쟁' 출시 사흘만에 매출 50억원 돌파

해외 매출 비중 80%...서구권 인기 구글플레이 14개국 전략 게임 1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이 출시 초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청신호를 켜다.

컴투스 백년전쟁이 지난 달 29일 글로벌 동시 출시 후 3일째인 2일 정오까지 누

적 매출 50억 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이 눈길을 끈다. 북미 25%, 유럽 27% 등 절반 이상 매출이 서구권 시장에서 나왔다.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인기 순위 1위를 달성한 한국은 19%,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은 26%를 차지했다. 단일 국가 중에선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미국에서 가장



컴투스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백년전쟁은 지난 달 29일 시작된 사전 다운로드에서도 한국, 독일, 프랑스, 태국, 홍콩

앱스토어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고 출시와 함께 첫날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이후 주말을 지나며 구글플레이 14개국, 앱스토어 10개 국 인기 전략게임 1위에 올랐다. 톱10에는 각 마켓별로 63개 국 차트에 진입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백년전쟁 출시 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실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장르가 다른 두 게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bong82@donga.com

##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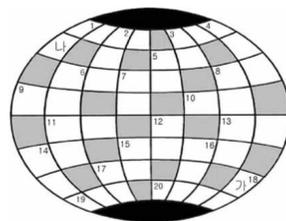
### ■ 스도쿠문제

7	9	3	5	2	
		2	9		
2	3	8	7	1	
	9			7	
4	1		2	8	
	2			1	
1	8	6	4	7	
		7	8		
6	2	1	9	5	

### ■ 스도쿠정답

9	8	6	1	7	2	3	4	5
2	1	8	9	5	7	6	3	4
6	1	9	7	8	6	3	2	5
9	5	2	7	6	1	9	8	3
1	6	7	9	8	9	6	2	3
8	7	9	6	2	1	7	5	4
9	6	5	8	1	2	3	4	7
1	2	7	6	2	9	8	9	8
2	9	8	6	2	1	6	2	7
7	8	6	1	9	2	5	7	4
2	1	9	1	6	9	8	7	5

### ■ 낱말문제



### ■ 가로열쇠

01.계곡 사에에 밧줄 등으로 엮어 만든 다리. 03.맞춰 놓은 시각에올려 시간을 알리는 시계. 05.품삯을 받고 일하는 막별이꾼. 06.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섬. 08.쌀을 이는 데 쓰는 기구. 09.내버려 둠.

10.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일. 11.결혼한 한 쌍의 남녀. 13.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에 구멍을 파는 일. 14.마음을 잡지 않고 풀어 버림. 15.사기그릇의 깨어진 조각. 17.사람의 머리털. 19.형지가 있던 방. 20.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 "견○지○"

### ■ 세로열쇠

01.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감. 02.많은 섬이 산재하는 해역. 03.머느리. 04.무릎과 발목 사이의 뒤쪽 근육 부분. 06.도로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 06.이를 갈며 속을 씹임. 07.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타게 대움. 08.명예는 조정에서 다루고 이익은 시장에서 다루라는 뜻. 12.개운치 않은 감

###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가, 나란을 이어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